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80)	봉헌 (221)	성체 (153)	파견 (271)
---------	----------	----------	----------	----------

제1독서 | 하바 1,2-3; 2,2-4

화답송 | 시편 95(94),1-2.6-7.11-12.7.13-9(◎ 7.1과 8.1)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트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2독서 | 2티모 1,6-8.13-14

복음환호송 | 1베드 1,2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 루카 17,5-10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9/29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10/6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10/13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10/20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40	\$	\$1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28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이 요한/ 이 마틸다
10/5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유 요한/유 마리아
10/12	손 아놀드/ 손 쟈마	11/16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0/1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3	홍 마르코/ 홍 아녜스
10/26	박 벨라렛다/ 정 루시아	11/30	김 요아킴/ 고 안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차라리’와 ‘그래도’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후배 하나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따라왔지요. 우리는 “좋은 저녁이야”를 연발하며 분위기 좋게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두 잔의 와인을 마시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더니 벌떡 일어나고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시간은 좋은 대화가 핵심입니다. 좋은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을 잇는 연결고리 중 ‘차라리’는 여러 차례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돌아서고 말지!’,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등 인내를 시험하듯 ‘차라리’라는 말은 절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를 ‘그래도’로 바꿔봐. 네 기분이 변하고, 생각도, 행동도, 지금 이야기도 조금 변화되지 않겠니? 너 힘든 거 알지만 차라리(里)보다 그래도(鳥)가 좀 경치가 좋을 것 같지 않아?” 후배가 너무 엉뚱했는지 강의하냐고 대뜸 얼굴을 치켜들다가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언니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우울해서요.” 후배가 말하는 ‘차라리’를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건넌 강이기에 저도 밥 먹다가 신경이 곤두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건넌 강은 ‘그래도’입니다. 내가 수천 번도 넘은 강이고 또한 누구나 건너오고 건너가고 있는 강입니다. 김승희 시인이 “그래도라는 섬에 살고 싶다”라는 시에서 ‘그래도’의 의미를 너무 잘 그렸습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11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11월 3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주 둘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변경: 본당의 견진 교리반과 친교실 사용 중복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셋째 주일에 가졌던 소공동체 모임을 이번 달 부터 둘째 주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10월 목주기도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미사 시작 30분전에 목주기도 5단을 다함께 바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저도 늘 ‘~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를 연발하긴 했지만, 결국 제가 생의 가장 빛나는 도시를 찾은 건 ‘그래도’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출발점이며 발견입니다. 언제나 희망의 공간입니다. 생은 높이뛰기였고 장애물 넘어서기이며 도전의 이름으로 땅을 넓히는 멀리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다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의 도발적인 말과 행동 아래 깔려있는 불쌍한 욕구를 제가 읽어 내지 못한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우리는 침묵했고, 서로가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절반 남은 밥은 웃으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정신이 약해지는 것인지 젊은 시절의 고통들이 불끈 일어서서 절 숨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발끝에 힘을 주면서 스스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둔감하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책을 듣거나, 대화가 되지 않아 좌절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신력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며, 위안이며,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저는 다시 감사합니다. ‘차라리’의 강에서 ‘그래도’의 강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저의 기도의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